

본 스크립트는 KERIS 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 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김주현(광운대), 김후(한양대), 박우정(한국외대), 오지수(성균관대)

SDF2014

*연사: 피트 에커트 (Pete ECKERT)

*연설: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다 (Seeing the World without Seeing it)

김환: 네, 잭안드라카의 얘기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We listened to the story of Jack Andraka.

자, 묻다 세션의 마지막 연설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now, we are going to meet the last speaker of the session Ask.

디지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늘 시각적인 화면, 화려한 빛에, 그리고 색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라는 거죠.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ra is that, in comparison to the past,
we are always exposed to visual monitors, fancy lights and colors.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훨씬 잘 보던 것들을
좀 놓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 보게 됩니다.
So, I believe, because of it,
we lost something that we used to observe better before.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피트 에커트는 우리가 놓치는 장면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 준다고 합니다.
The photographer Pete Eckert who is blind
is going to show some scenes that we lost.

블라인드 비주얼 아티스트 피트 에커트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Please welcome blind visual artist Pete Eckert.
Please give him a big hand.

Pete: Hello, my name is Pete Eckert. I'm a totally blind photographer.

Some of my images rub behind me here.

안녕하세요 피터 에커트입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진작가입니다
제 뒤에는 몇몇 저의 작품들이 보이네요

I haven't always been totally blind.

About 30 years ago,

I was a sculptor and had intended
to go back to school to become an architect.

그렇다고 항상 시각을 잃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30년 전에 저는 조각가였고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And then I started to go blind.

I decided to get a maste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 black belt in Tae-Kwon-Do as well.

그리고 점차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태권도 검은띠를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My two fears were making money,

you know when I'm able to bank(1:16:15)

money and how I protect myself.

저의 2가지 두려움은 돈을 버는 것과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While I was in graduate school,

I began to lose more vision.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저는 시력을 더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I woke up one morning

and I had lost a lot of vision in one eye.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And so my balance was affected.

I could barely walk

so I really couldn't ride my bicycle back and forth to school.

이 때문에 제 몸의 균형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저는 거의 걸을 수 없었고

학교를 오갈 때 자전거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At that time, before the vision loss,

I've been going to school
and I could read one or two letters at a time.

제가 시력을 잃기 직전에는
저는 학교에 가서
한 두 개 정도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So at about this distance, I had, it was like looking down a straw,
so it was pretty difficult to get through school.

거리를 두고 빨대를 통해 보는 것 같았고
따라서 학교 다니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Riding my bicycle, my mind's eye, if I daydreamed,
would mask that little tiny a bit of vision.

자전거를 탈 때 공상하면
제 마음속 눈은 조금 남은 시야를 대신했습니다

So I was pretty good, I clearing my mind like a zen monk
I knew I had control to some extent.

저는 스님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을 잘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I really didn't want to go blind.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기 싫었습니다

I've been visually an artist or visually gifted for my whole life
and have been taken it away.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시각 예술가이거나
또는 시각적 재능이 있었는데
이것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It was a hardship.

이것은 시련이었습니다

So I decided to build a method
using sound, touch and memory
to bring vision to my mind's eye.

그래서 저는 소리를 이용하거나 만지거나 기억에 의존해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Remember I said my daydream was so strong.

저의 공상은 능력은 매우 강합니다

And within two days using just sound, touch and memory,

I was able to disregard some of the vision
that was making me lose my balance and
I was able to ride my bicycle again.

그러자 이를 안에
소리와 촉각 그리고 기억을 이용해
균형감각을 잃게 했던 시각의 일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The concept of being able to rewire the optical cortex
so quickly changed my life.

시력을 새롭게 연결하는 구상은
제 인생을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So I was in Tae-Kwon-Do at that time.
This instructor was a very nice man
and he agreed not to tell anyone
that I was visually impaired, until I get my black belt.

그 당시에 저는 태권도를 배웠었는데요
사범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검은 띠를 딸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시각 장애를 가진 것을 비밀로 해주었습니다

It was honorable, he never said a word
and then we told people once I got black belt.

그는 정말 비밀로 하고 있다가
제가 검은 띠를 따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So I honed my ability using sound, touch and memory
going through his classes in sparring at full speed.

저는 청각과 촉각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는 저의 능력을 통해
그의 수업을 최고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In my class, it was mostly men,
mostly military and police officers
so they were very good opponents.

이 수업에서 대부분의 수강생은 남자였고
또 대부분은 군인이거나 경찰관으로
저에게 매우 좋은 상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Once when I was in school,
I used to get rid of my bad feelings
doing very dark wood cuts and high contrast graphite drawing.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암울한 목판화와 강한 명암의 흑연 그림을 그려
우울한 감정들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They were good. But I didn't want to sub-con to depression.
I wanted to do something more positive,
something faster that I could get a feedback,
much faster than wood cuts.

그것들은 좋은 방법 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우울한 상태가 되기 싫었습니다
저는 뭔가 더 긍정적인 것을 하고 싶었어요
목판화보다 반응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이죠

So one day, I was cleaning out a drawer
and I found my mother-in-law's old Kodak Retina2 camera, the 35mm.
그래서 하루는 서랍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의 오래된 35mm 짜리 코닥 레테나 2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My wife came home.
I love mechanical things so I was playing with it.
저의 아내가 집에 돌아왔고
저는 기계를 좋아해 그것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And she described the settings to me
and one of the settings was inferior.
그리곤 저의 아내는
카메라의 장치들을 저에게 묘사해주었고
그 중 하나가 잘못 되었습니다

The idea of totally blind man,
or at that time I didn't have any vision at all,
doing photos in a non-visible wavelength
that just crack me up.
당시 시력을 완전히 잃었던 저의 아이디어는
저를 무너지게 했던
보이지 않는 충격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Plus, the name of the camera, Retina2, my two retinas didn't work
and here's a camera called a Retina2.
게다가, 저의 두 망막(retina)은 손상됐는데
마침 카메라의 이름도 레티나 2 (Retina 2) 였죠

So right from the start, I was doing photos at night
because blackness and blindness are related.

시작 단계부터 저는 사진작업을 밤에 했습니다
어둠과 시각손상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I like metaphors that express the blind world.
I got good results.

I showed my contact sheets to camera stores and photo labs.

저는 맹인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죠

저는 카메라 가게와 사진관에 제 밀착 인화지를 보여주었죠

And right from the start I got good results
they were surprised that I could even do it.

시작단계에서부터 저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죠

The camera stores were really good to me
I buy like just a couple of old films, some photo paper,
and I'd ask just a dozen questions and
I come back on the next day with dozen more questions.

카메라가게는 저에게 매우 잘 대해줬습니다

옛날 필름 몇 개와 사진 전용 인화지를 조금 사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다가 다음날 가서 더 많은 질문들을 했죠

I learned photography by asking questions at the photo stores
and anybody else that knew photography that would listen to me.

저는 카메라 가게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메라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진을 배웠죠

And 'the Time-Life books from the 1970s.

The Time-Life books were at the library
but they were reference books, I couldn't take them out.

그리고 1970년대 책인 Time-Life 책에서도 배웠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 있었지만 대출되지 않는 참고도서였습니다

And I didn't have a computer to translate the books
so I couldn't read them by sound.

저에게는 책을 번역해 줄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로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So my wife looked for them at yard sales.
She found some, I bought a talking computer and
so I was able to read some of the precious books.

그래서 제 아내는 창고 세일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샀고
따라서 저는 귀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I was doing what I called tourist photography.
당시에 저는 제가 여행 사진작업이라고 이름 붙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I wasn't sighted so I was going around taking photos
that looked like I was sighted.

저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습니다

I was looking for a way to differentiate my work,
make it more from the sighted world or
from the blind world than the sighted world.

저는 제 작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앞이 보이는 세상보다 암흑의 세상을 더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

To get feedback, I'd make contacts and bring them to friends
and have them describe to me how my photos looked.

조언을 얻기 위해서,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제 작품을 가져가선
제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지 저에게 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I noticed that the event of taking the photos were important to me.
The feedback I was getting from friends, I liked that because critics,
I think they are good things for any artist to have.

사진을 찍는게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비평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은 어느 아티스트에게나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But it made a bridge between the blind and the sighted world.

그러나 이 조언은
암흑의 세상과 시각화된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I was the one who was doing everything in the event of photo
and so think of it as the artist are work conversation
and the artist and the painter the conversation with his painting
back and forth, it's a visual conversation.

사진의 경우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것을 예술가들이 일하는 것, 즉 대화라고 생각해봅시다
예술가와 화가는 그의 그림을 주고받으며
시각적 대화를 나눕니다

Then when he satisfied, he brings it to the gallery.
And then patrons have their own interpretation.
그가 만족했을 때, 그는 작품을 갤러리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자신들만의 해석을 합니다

I've switched this trial.
저는 이 방법은 바꿨습니다

I do the event and I bring the contacts to intermediary
so I can compare my memory of the event
with the reality of the contacts sheets.
제가 나름대로 촬영을 하고 중재자에게 사진을 가져가면
저는 제 기억 속 촬영을 밀착 인화지에 나타난 현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This has an economic reason too.
Say I made a simple mistake like leaving a lens cap on.
이것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렌즈 덮개를 씌우고 찍는 것과 같이 단순한 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I can't afford to show bad work,
저는 좋지 못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I'm trying to make some kind of profits
so I can continue to doing the work.
저는 사진작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노력합니다

So I really was thinking about how to differentiate my product.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You know, how I was gonna show the blind world.
어떻게 맹인의 세계를 보여 줄 수 있을까 하고요

And so, what's my next section here is about an adaptation and equipment.
다음은 적응과 장비에 관한 것입니다

I decided that the advent of the taking the photo was so important
that no one should be involved but me.
사진찍기를 시작한 것은 너무 소중해서 저는 누구보다 이에 몰입했습니다
I should either succeed or go down in flames, one way or the other.
저는 어떻게 되든지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then after I did the contact sheet,

it was very necessary to have a critic
while the memory of the event was still very clear.

사진을 인화한 후에

사진의 상황의 기억들이 아직 뚜렷한 동안에

비평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Then once again I would step in and
it would be all me picking the photos that I wanted to show in galleries.

비평을 듣고 나면 저는 다시

전부 제 선택에 따라 전시회에 전시할 사진을 골랐습니다

All the people in galleries, they too are very important to me.

전시회에 오는 모든 관람객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My work is not accessible to me.

저는 제 작품을 볼 수 없습니다

If a blind person came in to look at my work,
it wouldn't be right if no one describe the work to them.

만약 시각 장애인이 제 작품을 감상하러 온다면

이 때 아무도 작품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So every opening I've ever had, I've showed up
and just in case a blind person came in,
and wanted me to describe the work to them.

그래서 매 전시회를 할 때 마다

저는 전시회장에 있었습니다

혹시 시각 장애인이 전시회에 온다면

그들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But also I've been talking to the sighted people building a bridge back and forth.

또한 저는 눈이 보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소통을 합니다

Think of it as if I'm sliding a photo under the door
to be seen in the world of the sighted, there's a connection there.

이건 마치 내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도록

사진을 문 밑으로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I'm building images with sound, touch and memory.

저는 이미지를 청각, 촉각, 기억으로 만듭니다

That's very **atheorial(1:23:36)**.

It's much different.

이는 매우 비이론적이고

매우 다릅니다

It's not an exact representation of my world
but as I get better at it, it' gets closer and closer.

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벽히 대변하지는 않지만

제가 점점 더 익숙해 지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To do this, I need to have good control of my equipment.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제 장비들을 잘 다뤄야 합니다

I have three cameras.

저에게는 3 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My mother-in-law's, a Retina2 has been retired.

For a Canon point and shoot, a digital camera.

제 장모님의 레티나 2 는 폐기되었습니다

대신에 캐논 전자동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Then I have a Mamiya Flex that's my main work course.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마미야 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Toyo view camera for by five negatives with Rodenstock lens,
so small, medium and large.

로덴스톡 렌즈와 다섯개의 네거티브 필름을 사용하는 토요 뷰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중간 것,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I decide before I go out to make photos how big I want it to be.

My museum pieces are 40 inches by 50 inches.

So the large work needs the large negative.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 전에 얼마나 큰 사진을 찍을지 결정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들을 가로 40 인치 세로 50 인치 입니다

큰 사진일수록 큰 필름이 필요합니다

I like really sharp, crisp work.

저는 뚜렷하고 선명한 작품을 좋아합니다

Remember I'm also representing the blind community,
the better I do the better it looks for the blind.

제가 시각 장애인 공동체도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제가 더 잘 할수록 시각 장애인들에게 더 힘이 됩니다

If I can do it, then they can do it too.
만약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And so my Mamiya, when I got that I had to alter a lot of things.
마미야 카메라를 갖게 되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The reason I bought the Mamiya was the Kodak Retina2 had a lot of safe guards,
mechanical safe guards so it couldn't do double exposures,
it didn't have a good camera lug or tripod log.

마미야를 산 이유는
코닥 레티나 2 는 너무 많은 기계적 안전 장치가 있어서
이중 노출을 할 수 없었고
좋은 카메라 손잡이나 삼각대도 없었습니다

Other safe guards,
they were getting in my way from differentiating my product.
다른 안전 장치들은
저의 작품에 차별화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So when I bought the Mamma mia, I put braille dots all over it.
그래서 마미야를 샀을 때에는
카메라 전체에 점자를 세겼습니다

It's an old-fashioned twin lens, reflex camera.
You may know it's made from the 1950's
그것은 옛날 방식의 이중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였습니다
마치 1950 년대에 만들어진 카메라 같았습니다

It's a big box with two lenses.
You roll out the lens to adjust the focus.
큰 몸체와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됩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렌즈를 돌립니다

Well, that gave me an opportunity to take small files and file notches on the rails. (1:25:28)

So I would listen to how far away my subject was
and I'm pretty good at hearing then I can judge distance by the sound,
kind of like a bad(1:25:34), sound bounces sound bounces back.
저는 얼마나 물체가 떨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듣습니다
저는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로 거리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마치 소리가 되돌아 오는 것처럼요

And I put my finger nail into the right notch,
roll back the rails and that would be my focus.

손톱을 오른쪽 notch에 넣고 레일을 감으면
바로 제가 원하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I use normal lenses.

Normal lenses mimic the way I hear.

저는 일반 렌즈를 사용합니다

일반렌즈는 제가 듣는 것을 모방해냅니다

I could use a wide-angle lens

because the way I hear is 360 degrees.

But mainly I'm speaking with a normal lens right now.

저는 광각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60 도를 듣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주로 일반 렌즈로 말하고 있습니다

I have three tripods as well, again, small, medium and large.

저에게는 대,중,소 사이즈의 삼각대도 있습니다

When I go out to shoot, it's almost like I'm going out to war.

제가 촬영하러 나갈 때에는

꼭 전쟁을 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I don't drive so there's my guide dog,

he's not here with me today.

저는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내견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It was a long flight from California, it was too much for him.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까지는

안내견에게 너무 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And so my guide dog, my tripod, my camera kit and then myself.

출사 할 때에는 안내견, 삼각대, 카메라 세트와 제가 함께 합니다

We did a lot of photos at night.

우리는 사진을 밤에 많이 찍습니다

My first guide dog, Woozoo, he was, he was fabulous.

He was stunning, he looked like a big black wolf.

저의 첫 번째 안내견인 우주,

우주는 정말 훌륭한 안내견이었습니다

검고 큰 늑대처럼 멋있었습니다

He would come out with me,
he had to learn to be careful around the tripod not to knock it over.

우주가 저와 함께 출사할 때에

우주는 삼각대를 넘어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But then also, there was a lot of bad guys
that would want to steal my equipment.

또한 제 장비를 훔치려는 나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You know, I have a couple of thousands-dollars-worth of stuff on my bag
and I looked like I'm vulnerable.

아시다시피 제 가방에는 몇 천 달러 가치의 물건들이 있고

저는 약해 보입니다

Well, Woozoo wouldn't have any object
he would put himself between me and the bad guys, dance around,
remember he looked like a big black wolf.

우주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나쁜 사람들 사이에 서서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우주가 검고 큰 늑대 같이 보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And I pack out my stuff
and I had a command that I taught him, fly, fly boy.
We take off.

그러면 저는 제 물건들을 풀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를 가르쳤듯 돌아다니라고 명령합니다

떠나는 것이지요

So I learned photography with the asking questions, the Time-Life books,
the friendly people that helped me and then my big black wolf too.

저는 질문 하면서

Time-Life 책, 나를 도와준 친근한 사람들,

나의 검고 큰 늑대와 함께 사진을 배웠습니다

The adaptations to equipment, I already told you about my cameras.

장비에 대한 적응은

제가 이미 저의 카메라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했습니다

I also develop black and white film.

또한 저는 흑백 필름을 제작합니다

To do that, I had to take apart some of the tools.

You need a thermometer to have the temperature of the chemistry,
be at the right temperature.

필름 제작을 위해 몇 기구들을 분해해야 합니다

화학 작용을 위한 적정 온도가 되기 위해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So I took apart standard chemistry thermometer
and filed a notch into the special temperatures
so I could use it all by tactile.

일반 화학 온도계를 분해하고

특별한 온도계에 **file a notch**

촉각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 needed some kind of light meter
so I went and bought an old 1950s Western for
the light meters are like this big,
you know compared to the tiny ones that have nowadays.

노출계가 필요해

1950 년대의 낡은 서부 노출계를 샀는데

그것은 요즘의 작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컷습니다

But big isn't bad for me because I need to figure out by touch.

하지만 큰 것은 저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촉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o I took the glass off of it and put braille dots across it.

그래서 저는 유리를 떼어내고

점자를 세겼습니다

The braille dots didn't have any association
with the actual numbers that were around there
because I was building my own association.

점자는 그 주변에 있는 실제 숫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표현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This dot means that amount of time for this amount of light.

이 점들은 이 만큼의 빛에 대한 그만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Otherwise, the common sense will do,
the sunny 16 rule- you know what time and year it is.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상식인

Sunny 16 규칙을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과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요

You can tell where the sun's coming from
because it's on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비취지기 때문에
해가 어디서 비추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I have a stop watch that talks as well.
And so there was a lot of adaptations.
저는 말하는 스톱워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많은 적응이 있었습니다

Moving to digital,
sighted people see as if standing in front of a painting.
디지털시대로 이동하면서
눈이 보이는 사람들 그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봅니다

Blind people, if you're seeing with sound, touch and memory, it's in 360 degrees,
very hard concept to put into a photo.

시각 장애인들처럼
만약 당신이 청각, 촉각, 기억으로 본다면
그것은 360도(3차원)로 표현됩니다
사진으로 표현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I did consider cameras that to make cameras that had a loop of film,
you wind it up and will take the photo.

감아서 사진을 찍는
루프 필름 카메라를 고려해보았습니다

But that wasn't enough.
My little point and shoot camera, just a digital small Canon.
그러나 저의 작은 전자동, 디지털 캐논 카메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I learned that I could palm it and I could shoot in any direction.

저는 카메라를 손에 감싼 채
어느 방향에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Because, remember I'm working from my hearing, not my sights,
not putting it up to my eyes and taking a photo.

저는 시력이 아닌 청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눈에다가 사진기를 대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What interested me was, sighted people were comfortable with this.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식이 편했다는 것입니다

You know, people that hated to have their photo taken,
and I would put it over here and take their photo.
아시다시피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You know, shoot from, you know, behind me at them.
제 등 뒤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And they knew I was taking their photo and they didn't mind it.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의식하지 않습니다

But they did if I put it up to my eyes even though my eyes don't work.
그런데 저는 눈이 전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진기를 눈에 댈 때는 의식하더군요

So, I'm interested in the iPhone.
The iPhone's been called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e blind since braille.
그래서 저에게 아이폰은 흥미로웠습니다
아이폰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발명 중
점자 이래 최고의 혁신이라 불립니다

There's a lot of stuff there but the iPhone and what's called, Voice-over,
the Macintosh's speech program for the blind,
they were pretty good for people that have a little bit of sight.
세상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이폰과 매킨토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프로그램인
Voice-over 는 잔존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겐 꽤 유용합니다

But there are little bit more difficult for people who have no sight like myself.
하지만 저같이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기엔 다소 불편했습니다

I'm considered profoundly blind.
저는 완전히 눈이 안 보였으니까요

So there's a digital divide that really worries me.
As I get older, it's just racing out ahead.
그래서 정보 격차는 저에게 큰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빠르게 격차를 느낍니다

And for people out of over fifty and blind,
totally blind, there's not that much help
그리고 50 세 이상의 완전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You know we're not a very good market for computer companies, you know,
I've gone to Apple and I talked to them, I met with them.
컴퓨터 회사에게 시각장애인은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사에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And the first thing I say to them when they tried to show me Voice-over
or any other computers, the first thing I say is 'please turn off the screen'.
그 분들이 저에게 Voiceover 나 다른 컴퓨터를 보여줄 때
제가 처음 했던 말은 '스크린을 꺼 주세요' 였습니다

And right away they start having trouble with it.
And, Let's see, Microsoft has just bought a small program called Window-Eyes.
그러자 곧바로 이걸 시행하는데도 애를 먹더군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바로 Window-Eyes 라는 프로그램을 인수했습니다

Window-Eyes is a program I use
so I was hoping that Window-Eyes will be integrated into Microsoft.
Window-Eyes 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에 도입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One thing Apple did that was good was Voice-over is completely integrated.
애플사가 잘 한 건, Voice-over 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m complaining about it but I love that they integrated it.
제 맘에 썩 들지는 않지만 내장되어 있는 것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Perhaps some one day it'll work well for me.
언젠가 저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But I'm not sure that Microsoft is fully integrating it.
마이크로소프트사가 Window-Eyes 을 도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They are just buying Window-Eyes and making it available for no money.
그냥 Window-Eyes 를 인수해서 무료로 배포하기만 했거든요

So the blind do win out
they don't have to purchase something extra

but they had to purchase before, think it's go on for about 850 bucks for a single disk for that software..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하죠
예전에 850 달러 정도 주고 사야 했던 디스크 한 장을
이제 그냥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So the digital divide really worries me.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격차가 좀 걱정됩니다

My next session is about my work.
다음 세션은 제 작품들입니다

Okay, I do a lot of things called 'painting with light'.
Painting with light, you set up your tripod,
set your camera in a darken room or outside.
저는 소위 '빛으로 그림 그리기'라고 불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삼각대를 설치하고
어두운 방이나 밖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It just has to be pretty dark.
And you open the shutter then you go up and you add light to the model
or the subject or whatever you're doing.
꽤 어두워야 합니다
그 다음 셔터를 열고 모델이나 작업하는 피사체에
빛을 주면 됩니다

It's slow-speed photography.
So a lot of images that you're seeing are done that way.
상당히 느린 사진 촬영 작업이지요
지금 보시는 다른 사진들도 그런 식으로 완성됩니다

I also like double exposures.
Double exposures truncate time, remember I'm working with memory.
개인적으로 이중노출도 좋아하는데요
이중 노출은 시간을 함축하고, 말씀 드렸듯이 저는 기억에 의존해 작업합니다

So I need something to be a metaphor for how I see the world.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보는데 에 은유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So I'm always looking for metaphors.
저는 언제나 은유적인 것을 찾습니다

You know, sound, touch and memory.
아시다시피 소리, 촉감 그리고 기억 말입니다

Blackness and blindness are related.
 Double exposures are kind of like memories
 and painting with light is a kind of like touch.
 ‘어둠’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중 노출은 기억과도 같고
 ‘빛으로 그림 그리기’는 촉감과도 같습니다

Literally they're with the flash light adding light
 and I'm memorizing what I'm doing.
 말 그대로 섬광에 빛을 더하는 것이고
 저는 그 요소들을 다 기억합니다

That's how I build an image in my mind's eye to later on
 take a contact sheet to friends to get feedback.
 이렇게 마음의 눈에 이미지를 만들고,
 나중에 피드백을 얻기 위해
 밀착 인화지를 친구들에게 가져갑니다

Once again, it's just me picking the photos that, like I picked all these,
 which ones, and that's all based on memory.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전 직접 모든 사진을 고릅니다
 모두 제 기억에 기반해서요

Okay, let's see the next thing I've described visual metaphors
 that's what I call them, blackness and blindness.
 자, 다음으로 제가 시각적 은유라고 표현한 것을 봅시다
 제가 ‘어둠과 보이지 않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I'm always searching for that.
 전 항상 그걸 찾아 다닙니다

Visual metaphor for seeing in the round, I haven't found yet.
 ‘전방향 시야’에 대한 시각적 은유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Blind people see the world as if immersed in water,
 sighted people see it more like sitting in front of painting.
 시각장애인들은 세상을 물에 잠긴 것과 같은 상황에서 보고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앞의 그림 보듯 세상을 봅니다

So I'm always looking for something and I like to differentiate
 and increase the complexity of my work.
 그래서 저는 늘 제 작업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고
 이로써 제가 하는 작품의 복합성을 높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ve been doing,
I've noticed that my work's gotten more and more surreal.

제가 작업하며 알게 된 점 중 하나는
제 작품이 점점 더 초현실적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And if I'm trying to truncate time,
why not try to elicit whole story or subtext from the viewer?

그리고 제가 시간을 함축하려 한다면
전체 이야기나 숨은 의미를 관객에게서 유도하면 어떨까요?

So I'm doing something now I call 'one shot cinema'.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원 샷 시네마' 라 부릅니다

The goal is to bring out a subtext from my viewer.
목적은 숨은 의미를 관람객으로부터 끌어내는 거죠

There's two examples in here,
one's called *Night dream*, the other's *Serene*.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Night Dream*(*밤의 꿈*), 하나는 *Serene*(*고요*)라고 합니다

In *Night dream*, I have a little boat on a surreal sea
with a figure flying up in the air.
Night Dream 에는 초현실적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보트와 함께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People couldn't read it that well.
사람들은 이 사진을 잘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They thought, one person thought it was a van
that was sinking and one was dead going to heaven.
어떤 사람은 침몰하는 차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So I did another one that was a little bit easier to read, called *Serene*.
다른 사진은 좀 읽기가 쉬웠죠, *Serene* 말입니다

Again, a surreal sea with the boat kind of kicked off a little bit
so you could see inside the boat that was certainly the boat.
다시, 초현실적인 바다와 이제 막 떠나는 배가 있고
그래서 배 안을 볼 수 있어 확실히 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d then the woman was flying up in and she was kind of fish-shaped.

I have Christian imagery as subtext in a lot of my work.

여자는 물고기 모양으로 그 위를 납니다

제 작품에 숨은 의미로 기독교적 이미지도 많이 집어넣는 편입니다

The body at the water, the little boat and definitely the fish-shaped woman
all are Christian images.

물 위의 보트와, 특히 물고기 형상의 여자 같은 경우,

다 기독교적 이미지죠

I have a couple of different techniques I did the photo,
it's up here somewhere, called *Cathedral*.

다른 기술을 쓴 사진들도 몇 장 있습니다

지금 저 위 어디에 떠 있을 텐데, *Cathedral(대성당)* 이라 부르는 작품이죠

On Christmas day, at a Franciscan church,
one of my friends is a Franciscan priest.

크리스마스 날, 프란체스코 성당에서였습니다

제 친구가 프란체스코 신부인데요

He was saying Mass and I did multiple exposures, remember I'm trying to truncate a time
and so the total number of exposures on this one photo was sixteen multiples.

그는 미사를 드리고 있었고, 저는 다중 노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함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한 사진은 총 열 여섯 번의 노출로 이루어졌습니다

I know the Mass, I've been doing Mass throughout my life.

저는 그 미사를 평생 들어 왔으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So I'm, in real time, adding another layer on top,
calculating and thinking 'how it's gonna be the last result?'

그래서 전 실시간으로 또 다른 노출 층을 추가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산하고 생각했습니다

And so the imagery in that photo, it's kind of as wispy feeling through it.

이 사진의 이미지는 일종의 희미한 감정 같습니다

I wanted to show what it felt like when the Holy Spirit is in the church.

저는 예배당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So Father Anthony, my friend that's saying the Mass,
I had three images of him that are transparent.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 제 친구 앤서니 신부는

총 세 개의 투명한 이미지로 표현 되었습니다

You can see right through him.
그의 뒤까지 뚫어볼 수 있습니다

One of it, you can see through to the choir.
그 중 하나 보이는 게 성가대지요

In the aisle, there're three people coming up.
복도에서는 세 명이 나오고 있고

So Father, son and holy ghost, you know, the subtext in it.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진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It's a popular image.
꽤 인기 있는 사진입니다

There's another image called *Stations*.
'Station'이라는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And the catholic churches had a lot of difficulties.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nd so my comments on it,
it has a man that looks like a Monte de Cristo
사진에 대한 제 설명을 드리자면
몬테크리스토 같이 생긴 남자가 하나 있는데요

But I had duck boots.
I have boots on his feet.
하지만 전 덕부츠가 있었습니다
그 부츠를 그에게 신겨 놓았죠

And rarely people see it, but when they see it,
they ask 'why did you put those in?'
보통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데
찾아낸 사람들은 왜 부츠를 신었냐고 묻습니다

and I say 'well, it's the walk through the muck and mire of Catholic Church.
Woo. You know, the comments.

저는 '가톨릭 교회의 고난을 뚫고 헤쳐 나가는 길이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반응들은 예상한 것 같이 좋습니다

so, let's see. After that, I talked about blind people
seeing the world as if immersed in water.

다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야기했었죠
마치 물 속에 잠겨 있는 듯한 상태 말입니다

Sound and how it works is always been interesting to me.
소리, 그리고 소리와 그 작동원리는 항상 흥미롭습니다

I had learned in martial arts about how to work with it tactually
and that helped me work on the street riding my bicycle.

무술을 배우며 전 소리를 촉감으로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에 도움이 되었지요

But I wanted to do something that was outside of studio
and produce some kind of product.

하지만 전 스튜디오 밖에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죠

So using the senses: sound, touch and memory,
produce in a theorial-type look.

그래서 소리, 촉감, 기억 같은 감각을 사용하며
'이론적인' 형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It's not the same as when I was sighted.
And there are more mistakes that can happen.

눈이 보였을 때와는 다르지요
더 많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o the mistakes are actually important to my works.
There are misinterpretations.

그래서 실수는 사실 제 작업에서 중요합니다
오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My wife and I go to this little restaurant,
and my view of restaurant is much nicer than hers.

아내와 같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내가 받은 인상보다 제가 받은 인상이 훨씬 좋았죠

You know, she tells me what the place actually looks like
but I disregard that and prefer to be in the nice place
that I've created for my own mind's eye.

뭐랄까, 아내는 그곳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주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의 눈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훌륭한 식당에 있길 원하는 거지요

So, also there's phantom senses.

You may have thought about or heard about so many has an arm cut off.

또, 환상 감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팔이 잘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상상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Sometimes they can feel the missing limb or even you know,
their hands feel something.

I have this strange phantom sense.

가끔씩 존재하지 않는 팔의 감각을 느낀다거나,

심지어는 손에도 뭔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이 환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n I'm very healthy, when I'm working out a lot,
a light emanates from my bones and that's very strange.

몸에 힘이 넘치고, 운동을 많이 했을 때면

제 몸의 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굉장히 기묘하죠

But it must have some kind of bio feedback and
why I'm trying to rewire the optic cortex.

일종의 생체적 피드백일 겁니다,

제가 시신경을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s I said, you know I did that through martial arts
and I've been doing it for 25 years.

이미 말했듯, 제가 무술을 통해 뭘 배웠는지 아실 텐데

전 그걸 지금까지 25년 동안 해 왔습니다

So there's a bio feedback where I can actually see,
the bones of my skeleton.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볼 수 있게 생체적 피드백이 온 겁니다

제 몸 속의 뼈들을 말이죠

But I can actually see it behind my head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true vision.

그렇지만 제 머릿속으로만 '실제로' 보이는 것이기에

진짜 시각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It'd be much better if I could see the people around me
even if they're skeletal
but I have to do that by sound.

골격 밖에 안보이더라도

제 주위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걸 청각을 통해 해야 합니다

So phantom senses play into what I do.

그래서 환상 감각이 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When I first heard stop signs, you know,
I was with my first guide dog
so I was much more active than I had been.

제가 처음 신호등 정지신호를 들었을 때
전 제 첫 맹인견과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활발한 상태였지요

And signs would be up in the air and I couldn't hear the pole
but I could hear the reflected sound of the stop sign.

신호등은 공중에 있고, 기둥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지신호음의 반사된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d the first time I heard it,
it was a windy day so it was kind of shimmering.

그리고 그걸 처음 들었던 때,
바람이 좀 부는 날이라 살짝 희미했습니다

Well in my mind's eye it sounded like a spirit hanging up there.
제 마음의 눈에선 마치 귀신이 그 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And you know summoning some **bravery** there,
I went up and grabbed it and I found a stop sign.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 정지 신호 표지판을 움켜쥐었고 찾았습니다

Well, there's, sound works, let's see how to describe this.
음, 소리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Sound works like water wrapping around a rock.
소리는 마치 물이 돌맹이를 감싸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If you are in the eddy of the water,
you can get parallel access on the rock,
but also you can get information about the sound source.

그 물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하면,
돌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소리의 원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So it works as if wrapping around a rock in a river.
마치 물이 돌맹이를 감싸듯,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If you're walking down the sidewalk,
you can actually hear the telephone poles and the trees as traffic's coming by.

보도를 걷고 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전봇대와 나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The traffic goes by, wraps around and you know where the tree is,
but you can also hear as the sound shadow moves.

차들이 지나가면서 주위를 감쌀 때 나무를 느낄 수도 있지만
소리의 그림자가 움직일 때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the object that's causing the sound.
소리를 만들어 내는 물체를 찾을 수 있는 거지요

So that's how I sparred in martial arts when I was younger.
젊은 시절 제가 무술을 할 때 스파링을 할 수 있게 해준 방법이죠

I would hear the reflected sound off the walls
and it would wrap around my opponent
and I could get parallel access on them.
벽에 반사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상대방을 감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간접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It always surprised the men that I sparred with
because they scrubbed their feet around so much
I just put my foot on their, pop them three times and jump away.
저와 스파링을 댄 상대방들은 항상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닥에 발을 엄청 문지르기 때문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곳을
발로 세 번쯤 타격하고는 멀리 달아납니다

And you know, finally I told them 'you guys are so easy,
you're walking around like elephants.'
그리고 '이거 너무 쉬운걸, 다들 요란하게도 걸어 다니는군'이라고 말해줬지요

And you know, I gave them my secret
and they just became quieter, much harder to hit.
그리고선 제 비밀을 알려주고 나면
훨씬 조용하게들 움직여서
타격하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So there's rock and a river.
Babies don't learn to see right away.
그래요, 돌멩이와 강이 있는 겁니다
아기들은 바로 보는 법을 바로 배우지 못합니다

I'm building images using sound signatures,

an object has sound signature as something rules around it.

저는 음향적 특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한 물체에는 마치 그것을 규정하는 듯한 음향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And I'm actively going up and touching the object.

저는 적극적으로 이르러서 물체를 만집니다

As you walk along, you can hear parking mirror heads because they have a large enough sound shadow.

걷다 보면, 주차용 거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큰 소리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ut if you are on the side walk and they are over there, you can't hear the poles.

하지만 보도를 걷다 보면

기둥은 들을 수 없죠

So you are walking alone, and you hear blip, blip, blip at each one of these parking mirror heads but they're floating in air.

그래서 혼자 걷고 있다가 뽁뽁하는 소리를 주차용 거울에서 듣지만

사실 이 소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So it's easy to have misinterpretation.

I put all these misinterpretations into my work.

And so that's why it starts to look so surreal.

이런 식으로 오역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는 그 오역들을 제 작품에 녹여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죠

Let's see, while working with black belt class, actually I was a martial arts teacher and I had mostly male students,

다시 돌아가서, 검은띠 반에서 가르칠 때,

아, 전 사실 무술 사범이었는데 대개 남자 수련생 밖에 없었죠

fire fighters and police men mostly, they asked me to teach them how to spar blind.

소방수나 경찰관 등이 대다수였는데

저에게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스파링 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했죠

I found that even though they were smart, powerful men, they had difficulty.

그런데 똑똑하고 힘 센 남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I was wondering why,
you know, some of these men were very wealthy
and the police men were definitely in good shape and all that.

그 이유가 궁금했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경찰관이니까 몸도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And I realized that you have so much brain power.
그리고 깨달은 것이, 뇌 공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When you take vision out, it's not that the other senses getting stronger,
but you have the optic cortex you to move all that into.

시력을 빼고 나면, 다른 감각들이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으로 사용되는 시신경이 생기는 겁니다

So the senses, my senses have more room to go into.
그래서 제 감각들은 더 넓은 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Vision actually masked the possibility of me teaching these men how to use it.
시각은 사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But when you take it away, the optic cortex can be pretty easily rewired for other uses.
하지만 시각을 빼고 나면, 상당히 손쉽게 시신경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nd that's the basis how I learned to see.
그리고 그게 제가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던 기초가 되었지요

I have an opportunity that's much different than when I started.
제게는 제 어릴 적과는 다른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You know, I was gonna be a sculptor and I loved to build things
so you know when I put myself through school I was a carpenter.
원래는 조각가가 되고 싶었죠,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해서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I would have done carpenter for anything, for you know, free.
목수 일이라면 그냥 다, 돈도 안 받고 했을 겁니다

I drive up by my motorcycle with my sketch pad and sit down,
draw for the client and then gets it built.
It's all like fun.

스케치패드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앉아서는
고객이 원하는 걸 그려보고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정말 즐거운 일이죠

But then I started to lose my vision.
So now I have a chance because of this extra room in the optic cortex
to see the world in a very different way.

하지만 저는 제 시각을 잃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겐 시신경 때문에 생긴 여분의 뇌공간이 있어서,
세상을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And I've chosen to bring these images to the sighted.
Ok, what I'm doing is just showing a product of the blind world.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저는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지 시각장애인의 세상을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